

대행선연구원 제3회 학술대회

2600년 불교사에서 한 획을 그은 선종.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유구한 선종사에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의 창건주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펼친 선사상의 위상을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재)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6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라는 주제로 제3회 대행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학술대회서는 대행선의 특징과 한국 선종사와의 연결고리를 톺아보는 연구발표가 이어졌다. 연구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정리=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스승 없이 내면 집중한 대행선사…

"붓다와 대행선사 定學, 실천 강조"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초기경전과 대행선사 법문 통해
정학수행 공통 · 차이점 비교연구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은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은 선종의 특성과는 다르게 초기불교의 삼학수행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다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 차이점이 있으며, 심봉(心捧)의 등장과 함께 불성과 주인공을 핵심으로 다루는 차이점을 보였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첫 발제자로 나서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定學)수행 비교연구'를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그는 초기경전과 대행선사의 법문을 담은 〈허공을 걷는 길〉을 비교했다.

정 교수는 먼저 붓다와 대행선사 모두 삼학의 실천수행으로 정학수행을 강조했다는 점을 짚었다. 붓다가 팔정도 안에서 계정혜 삼학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혜학을 핵심으로 삼학을 귀결했다면, 대행선사의 삼학은 정학 핵심으로 귀결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또한 정향이 대행선의 핵심 가르침인 주인공과 연결된다는 점을 짚었다. 초기불교에서 정학이 삼학의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대행선의 정향도 마음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대행선사의 정학을 초기경전 기준에 따라 '정진(精進)' '염(念)' '정(定)'으로 구분했다.

정 교수는 '정진'과 관련해 대행선의 정진이 노력 차원을 넘어 일상삼매 · 평등선정과 동등한 위치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대행선은 정진을 통해 일상의 삶과 정진을 분리하는 것을 경계한다. 정진을 게으름의 반대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준다"며 "정진은 수행의 발전을 통해 노력을 넘어 경계에 시달리지 않는, 인위적이지 않은 상태로 발전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이어 대행선의 '정(定)'이 대상에 집중하는 의미를 넘어 '심봉(心捧)'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심봉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집중의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심봉은 수행자의 의지처로 확장한다. 동시에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라며 "대행선의 심봉은 정학을 위한 기준이다. 심봉은 집중의 역할에서 그 의미를 확장, 세상이치의 근원이고 깨달음의 영역으로 펼쳐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초기불교와 대행선의 비교를 통해 정 교수는 "초기불교는 삼학으로 점진적 수행법을 혜학에서 정리하고자 했고, 대행선은 정학으로 삼학이 회통하는 원리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붓다와 대행선사의 가르침은 정학이라는 실천과 체험과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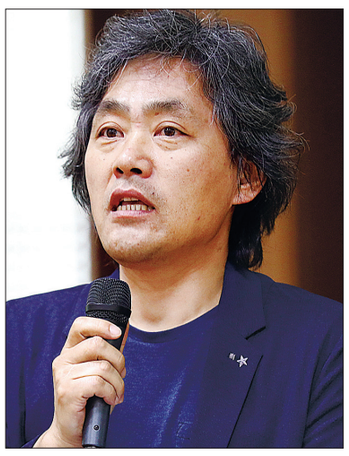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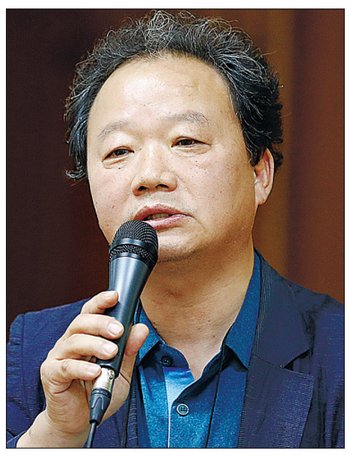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



박재현 동명대 교수



김방룡 충남대 교수



오경후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대행선사 포교, '쉬운 불교' 방점"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日하쿠인 스님과 포교방식 비교
지방포교 · 기록물 활용 등 유사

"일본 에도시대 임제종 중흥조인 하쿠인 에카쿠 스님과 한국 근현대 고승 묘공당 대행 스님의 대중포교 방식은 일반 민중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두 스님은 모두 민중이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도왔고, 지방포교에 관심을 기울이며 불교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일본 근세 임제종의 중흥조로 평가되는 하쿠인 에카쿠 스님(1685~1786)과 대행선사의 포교방식을 비교했다. 그는 '하쿠인과 대행의 대중포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두 스님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민중을 위한 대중포교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하쿠인 스님과 대행선사는 △포교 대상이 일반민중에 집중 △지방포교에 관심 △문서와 매체를 이용한 기록 △문화예술에 관심 △교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불 강조 등에서 포교방법의 유사성을 보였다.

먼저 하쿠인 스님은 다양한 저서에서 짧은 문장과 의성어 등을 사용하면서 일반인에게 비교적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용어를 쉽게 설명했다. 가령 '약사여래'를 설명할 때는 '일체중생의 번뇌를 치료해 마음속의 고뇌를 없애 구제하고, 이것을 표현한 약사에 앉는다'고 풀어 설명했다. 대행선사 역시 1990년대 한자중심의 불교용어를 현대용어로 풀어 반야심경을 비롯한 각종 경전을 대중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뿐만 아니라 두 스님은 지방포교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하쿠인 스님은 에도를 벗어나 히다 지역에서 〈관음경〉을 중심으로 한 법회를 지속적으로 열었으며, 대행선사는 전국지원을 개원하고 지방법회를 찾아가 꾸준히 법문했다. 또한 하쿠인 스님이 종이를 사용해 후대를 위한 저작물을 남기고, 대행선사가 녹음과 녹화로 법문을 전하며 기록물을 남긴 점 등도 유사한 포교방법으로 제시됐다.

이 교수는 "하쿠인과 대행은 시대는 달랐지만 불교의 핵심을 일반 대중에게 잘 전달해준 선각자이자 대비심을 발현한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하쿠인 스님과 대행선사는 대중포교를 바탕으로 현대의 재가불자를 위한 포교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불자들의 환경운동 참여 독려 △사회적 협동기업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문화활동 투자 등을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제시했다.

"대행선관법, 천태 원돈지관과 같아"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

'법화경' 내 제법실상 등 가르침
대행선사 '한마음'으로 달리 불려

"천태와 대행은 그 시대적 배경이나 사명이 전혀 달랐다. 천태는 남북조불교를 통합 회통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었으므로, 불교의 교문과 관문에 대한 해석이 방대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대행은 근현대 전환기의 한국사회를 겪었고, 그의 시대는 산업화와 정보화시대까지 걸쳐져 있다."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은 '법화천태 교관과 대행선사의 관법'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그는 〈법화경〉과 이에 의거해 형성된 천태 교관의 관점에서 대행선사의 교화와 행법을 살폈다.

오 연구원은 우선 〈법화경〉 '방편품'에 설해진 제법실상과 일대사인연과 같은 특정 교설과 대행선사의 전법교화의 상통점부터 조명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여러 경전마다 연기 · 중도 · 진여 · 여래장 · 법성으로 설명되는 가운데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제법실상'을 오 연구원은 주목했다.

그는 대행선사 법문 중에서 실상에 대한 내용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